

News

금융위·금융권, 10조원 증시안정펀드 조성 업무협약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5대 금융그룹을 비롯한 17개 금융기관, 한국증권금융은 '다함께코리아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출자규모는 산업은행 2조원, 5대 금융그룹 4조7천억원, 금융투자 1조5천억원, 생명보험 8천500억원, 지방은행 5천억원, 손해보험 4천500억원 등

미 연준 '미국채 담보' 해외 중앙은행에 달러유동성 푼다

연합뉴스

미국채 매각 없이 유동화 가능...통화스와프 계약 이어 '레포 거래' 시행...통화당국이 보유한 미국채를 매도하지 않고서도 단기적인 유동화가 가능해졌다는 뜻
하루자리 거래이지만 필요한 만큼 톨오버가 가능... 연준 초과지급준비금 이자율(IOER) 기준 0.25%포인트 추가금리가 적용...4월 6일부터 최소 6개월 가동

'독이 든 성배' 영구채 발행 늘리는 우리은행

데일리안

지난해에도 신종자본증권 5000억 또 늘려...총 3.7조 육박... 이자 5%대 채권만 1.3조...기준금리 추락에 부담 가중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역풍에 저금리 기조가 심화하면서 이로 인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

6대銀, 지난해 지점 66곳 문닫았다

파이낸셜뉴스

신한·KB국민·우리·하나·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지점 수(출장소 제외)는 총 3257개로 집계
2018년 말(3323개) 보다 66개 감소...금융 소외계층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압박 등으로 그동안 속도 조절

내년 7월 닷올리는 '신한+오렌지' 생보 빅3 체제 흔들까

파이낸셜뉴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내년 7월1일 통합키로 하면서 그동안 공고했던 '생보사 빅3'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전망
총 자산 규모 66조9952억원으로 업계 4위...두 보험사의 통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게 통합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지

보장성 보험료 이달 5~6%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주요 보험사의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평균 5~6% 인상될 것으로 전망...상품개정을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예정이율 인하에 나서고 있어
주요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춘다는 계획...다만 보험료 인상폭은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사업비 절감을 위한 상품개정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

'라임·DLF' 영향 지속...사모펀드 개인 판매 8개월째 감소

연합뉴스

지난 2월 말 현재 개인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22조7천4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1%(4천919억원) 줄어...
지난해 6월 말 27조25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지난 8개월 동안 판매 잔액은 4조3천억원 넘게 줄어

온라인 전용펀드가 대세...올 설정액 벌써 1조 늘어

데일리안

31일 기준 온라인 전용 펀드의 총 설정액은 12조4,813억원으로 집계...온라인 펀드의 총 설정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 11조3,783억원까지 성장
각 증권사가 온라인 펀드의 라인업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릴 수 있는 마케팅...한국투자증권이 최근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펀드 등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